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2001 가을 (통권 제13호) 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156-74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번지

□ 시에의 초대 □

담양장

최 두 석

죽장의 김삿갓은 죽고
참빗으로 이 잡던 시절도 가고
대바구니 전성 시절에

새벽 서리 밟으며 어머니는 바구니 한 줄 이고 장에 가시고
고구마로 점심 때운 뒤 기다리는 오후, 너무 심심해 아홉 살 내가
두 살 터울 동생 손 잡고 신작로를 따라 마중갔었다. 이십 리가
짱짱한 길, 버스는 하루에 두어 번 다녔지만 꼬박꼬박 걸어오셨
으므로 가다보면 도중에 만나겠지 생각하며 낯선 아줌마에게 길
도 물어가면서 하염없이…… 그런데 이 고개만 넘으면 읍이라는
곳에서 해가 덜렁 졌다. 배는 고프고 으스스 무서워져 한참 망설
이다가 되짚어 돌아오는 길은 한없이 멀고 캄캄 어둠에 동생은
울고 기진맥진 한밤중에야 호롱 들고 찾아나선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그날 따라 버스로 오시고

아, 요즘도 장날이면
허리 굽은 어머니
플라스틱에 밀려 시세도 없는 대바구니 옆에 쭈그려앉아
멀거니 팔리기를 기다리는
담양장.

— 시집 『망초꽃밭』(미래사)에서

□ 同門斷想 1 □

이것과 저것

김 영 규

아주 오래 전의 일이다. 필자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에 부임을 하였는데 그때 그 교회에는 세 사람의 당회원이 있었다. 세 사람이 모두 같은 양계업에 종사하고 이북에서 피난을 온 동향이었는데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왜 그런가 이유를 알아봤더니 유치원을 개원하는 문제로 서로의 감정이 나빠진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연은 이러하였다. 어느 날 당회를 하는 때에 교육 부서를 맡은 K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유치원을 개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만약 교회가 유치원을 개원하게 된다면 물론 유치원에서 자립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얼마동안 교회가 교사의 월급을 지급해 주겠다는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관리 부서를 맡은 H장로는 그럴 수 없다고, 유치원을 개원하려면 절대 교회에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게 하는 조건이어야만 허락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였다. 이렇게 두 사람이 팽팽하게 맞서게 되고 일이 어렵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을 맡은 G장로는 어느 쪽도 편들지 않고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양 무관심한 입장을 취하였다. G장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두 사람은 모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유치원 개원 문제는 자꾸 미루어지게 되었으며 당회원 세 사람의 관계도 소원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K장로와 H장로를 각각 따로 만나서 앞으로 당회에서 유치원 개원 문제를 다룰 때 보장이나 조건을 말하지 말고 개원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하라고 잘 타일렀다. 그러고 난 후 교육을 담당한 K장로와 함께 교회 근처에 있는 주민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유치원 원아를 모집하였다. 그래서 40명이 넘는 원아들의 입학 신청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 당회에서 유치원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어떤 일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다른 주장과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당연히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불가능하다. 어떤 때는 양편의 주장을 모두 접어두고 함께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첩경이 될 수도 있다. 일이 심각하게 되었고 사태가 어렵고 꼬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편만을 두둔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버티는 것은 솔로몬의 법정에서 아기를 둘로 나누자고 하던 여인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법 이상의 윤리적이고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4면에 계속)

□ 同門斷想 2 □

『大學別曲』, 그리고 「草聲」

오 지 석

숭실대학교 철학과를 이야기하려면 學術誌 『思索』, 小說 『大學別曲』, 그리고 소식지 「草聲」을 두루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책들을 소개해보면 — 『思索』이란 책은 우리 과의 학문적 위치를 알리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대학별곡』이란 소설은 대학(哲學科) 생활과 은사님들의 면면을 소상하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이제 남은 「草聲」은 80년대 말부터 科房에서 학생들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쌓아놓은 자유분방한 사유의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사색』지와는 별 인연이 없어 이야기를 접어 두고 대학을 입학하기 전 필독서를 읽는 심정으로 읽었던 『大學別曲』과 대학을 졸업하고 조교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군에 갔다와 복학해서 숙소처럼 여기며 들렀던 科房, 그 곳에 놓였던 노트에서 시작된 「초성」과 조금은 관계가 있는 이야기들을 소개 해보려 한다.

이야기 1. 『大學別曲』은 내 哲學科 生活의 나침반

1984년 겨울부터 이야기를 끄집어내 볼까 한다. 그땐 이미 학력고사가 끝난 후였다.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형이 내가 崇田大 哲學科에 입학 원서를 넣을까 한다고 하니 좋은 책 한 권(『대학별곡』)과 자기가 잘 아는 사람(안영민 동문, 84학번)이 있다고 소개해주면서 재미있게 대학생활을 하라고 했다. 이런 선지식을 통해 나는 숭전대 철학과란 어떤 곳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확실한 가이드와 가이드북이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가'라며 면접 장소에 들어섰다. 면접장에서 난 그 책에 언급된 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관심 있게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입학(85년)하고 보니 나만 그 책에 매료되었던 것이 아니었다.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친구는 책에 나오는 것처럼 매일 소주를 한 병씩 마셔 대기 시작했고, 다른 친구는 학교 곳곳(그땐 돌건물도 있었다)에 다니면서 책 속에 나온 머리 윗 부분이 잘린 동자상을 찾아야 한다고 헤매고 다녔고,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처럼 살아야 한다고 '프로메테우스의 절벽'이라고 불린 뒷산의 바위에 올라가던 친구가 있었다. 그리고 大學別曲時代처럼 살아가고자 하였던 우리의 모습에 대해 훗날 88학번이 입학하면서 그 후배들 중 일부는 우리를 대학별곡 시대의 주인공 이름으로 불렀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소설 속에 등장했던 교수님들의 면면과 실제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혼자 웃던 때가 기억난다. 그 후 나는 잘하지 못하지만 '철학'이란 중독성 강한 학문에 빠져들

기 시작했다.

이야기 2.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草聲」의 본명을!

1989년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리고 길지 않은 조교 생활을 할 때 과사무실이 중앙도서관에서 인문대학 건물로 옮겨졌다. 그 뒤 옛 예배당 밑 실험실 자리에 科房이 생겼다. 그땐 과사무실과 科房이 마주 보고 있어서 학생회 임원들을 부를 때, 서로의 긴급한 연락이 있을 때, 전화보다 육성(개밥, 경일아! 라고 부르는 것)이 편리했었다.

그 시절 학교 밑에 상가가 있었고 그 곳엔 우릴 항상 반겨주던 '고래집'이 있었다. 때론 강남 지하 스탠드 바(강남시장)에서도 인생을 논하고 이념을 이야기했다. 그러다 밤이 깊어지면 '학생은 학교에서 생활을 해야한다'며 교문을, 학교 담을 넘어 두 손 가득 젊음의 음료(?)를 들고 과방으로 찾아들었다. 그러면 후배들과 또 다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어떤 후배는 시를 읊고 또 다른 이는 술과 싸우고, 노트에 뭔가를 써놓는 사람, 은은히 들려 오는 대금소리, 피끓는 이념과 민중들을 향한 마음들. 아무튼 이렇게 밤을 보내고 나면 科房엔 이상야릇한 냄새와 더불어 그 흔적들이 남게된다. 후배들이 과방을 정리하고 나면, 모씨는 일어나서 후배들이 노트에 적어 논 글을 읽으면서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하는 군'이라 평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 노트엔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란 제목이 붙어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지도 얼추 십 년이 지났다. 그간 무얼 하고 살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자문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어떤 이는 인생에 '하프 타임'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지금이 내겐 그 때 인 것 같다. 인생에서 전반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대학 시절을 회고하다보니 『대학별곡』과 「초성」과 함께 했던 것이 내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좋은 씨앗이 될 것 같다. (61회 · 의정부 염광교회 강도사)

(3면에서 계속) 예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7禍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박하의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지니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에만 목숨을 걸지 말고 더 중요한 저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도리도 다하고 時宜도 놓치지 않는 지혜를 터득해야 할 것이다. (43회 · 반포장로교회 담임목사)

● ●

알 림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 여러분의 회비로 꾸려집니다.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합니다.

- **연 회 비**: 회장단(15만원), 임원(10만원), 일반회원(5만원)

- **은행구좌**:
  한빛은행 461-146308-02-001
  우 체 국 012948-0048513
  [예금주] 숭철동문(김기순)

◆나의 학위 논문 1◆ Boston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2001년

로버트 커밍 네빌과 듀웨밍의 사상을 근거로 재구성한 한국적 신학의 인간론

오 정 선

이 논문은 한국적 유교-기독교 구원론(Confucian-Christian notion of salvation)을 제시한다. 필자가 제시하는 구원론은 소위 효(filial piety)를 한국적 인간론의 핵심으로 재조명한다.

필자는 한국적 유교-기독교 구원론을 제시하기 위하여 로버트 커밍 네빌의 신학적 인간론과 듀웨밍의 포용적 인간론을 비교 연구하였다. 네빌은 보스톤 대학교의 철학, 종교학 그리고 신학 교수로 유교, 특히 순자를 연구하는 현대 기독교 신학자이다. 듀웨밍은 하버드 대학교의 중국철학 교수로 서양철학과 기독교 사상을 함께 연구하는 현대 유교학자이다. 이 두 사상가는 최근에 보스톤 유학(Boston Confucianism)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사상가들이다.

이 주제는 필자의 계속되는 실존적, 그리고 학문적 관심이다. 한국인은 유교적 바탕 위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기에 한국 기독교 신앙의 인간 이해, 특히 구원 문제는 유교의 인간 이해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이런 면에서 네빌과 듀웨밍의 인간론 비교 연구는 한국적 유교-기독교 구원론 정립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네빌의 인간론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창조주에 의해 피조된 피조물로 제한된 한계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책임적 존재.

(2) 대자연의 일부로 몸으로 사고, 상상, 경험, 그리고 교통하는 존재로 우주의 계속되는 과정 속의 한 존재.

(3) 자신, 타인, 자연, 그리고 신과 언약을 맺은 존재.

두웨밍의 인간론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천, 지와 함께 공동 창조자로 하늘이 내려준 본성을 온전히 실현할 때 성인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음과 양의 조화로 이루어진 존재.

(2) 대자연의 일부로 육체를 가진 존재로 기(vital energy)로 이루어진 동적인 존재이다. 살아있는 몸(육체)으로 천, 지, 그리고 만물을 감각으로 구체화한다.

(3) 하늘과 땅과 함께 삼위일체를 이루며 타인과 연결된 언약적 존재이다. (51회 · 미국 Brunswick United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

◆나의 학위 논문 2◆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2000년

발터 벤야민의 매체 철학에 관한 고찰

심 혜 련

필자는 박사 학위 논문에서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의 기술 재생산 시대의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론을 철학적, 미학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사진, 영화, 광고 등을 중심으로 벤야민의 매체 철학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문화에 관한 담론이 넘쳐나는 현대에 벤야민 이론이 가질 수 있는 현대적 의의는 무엇일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한다. 본 논문은 내용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기술 재생산 시대의 예술 작품에 대한 분석이다. 즉 새로운 예술 형태의 특징과 그것의 사회적 기능 변화를 다룬다. 두 번째 부분은 기술 재생산 시대의 예술 작품과 지각의 상관 관계에 대한 분석이다.

벤야민은 산업 혁명 이후 기술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기술 재생산 시대의 예술 작품을 분석한다. 분석 과정에서 그는 기술 재생산 시대의 예술 작품의 특징을 '아우라의 몰락(Verfall der Aura)'라고 정의한다. 기술 재생산 시대 이전의 전통적인 예술 작품은 기술 재생산 시대의 새로운 예술 작품과 양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구별된다. 두 예술 작품의 특징의 차이는 결국 두 예술 작품에 대한 수용 과정의 차이, 두 예술 작품의 사회적 기능의 차이를 가져왔다. 벤야민은 전통적인 예술 작품을 아우라적인 예술 작품이라고 정의하고, 이와는 반대로 기술 재생산 시대의 예술 작품을 아우라가 몰락된 예술 작품이라고 규명한다. 아우라 개념은 벤야민 예술 이론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작도 역시 벤야민의 아우라 개념에 관한 고찰에서 시작한다.

벤야민은 전통적인 예술 작품을 아우라 개념을 가지고 파악한다. 그는 전통적 예술 작품이 가지고 특징과 권위를 바로 예술 작품의 아우라라고 정의한다. 주로 종교적 차원에서 사용되었던 아우라 개념은 벤야민에 의해서 종교적 의미에서 철학적 의미로 전환된다. 벤야민은 아우라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한다. 첫 번째로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특성으로서의 아우라와 두 번째로 대상에 대한 주체적 경험으로서의 아우라를 분석한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벤야민의 아우라 개념을 형성한다. 벤야민의 아우라 개념을 둘러싼 많은 논쟁들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 가지만을 강조하면서 발생했으나, 사실 아우라에 대한 이 두 가지 측면은 벤야민의 아우라 개념에서 공존하고 있다.

벤야민에 따르면, 아우라란 전통적 예술 작품이 갖는 물질적 측면, 즉 일회성(Einmaligkeit), 진품성(Echtheit), 원본성(Originalität)에서 기인한다. 이것이 바로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특성으로서의 아우라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대상적 특성은 그것의 수용 과정과 무관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복사될 수 없고, 또 복사된다하더라

도 늘 원본이 존재하는 한 전통적 예술 작품에 대한 복제품은 복제품에 머무를 뿐이다. 물질적 측면에서 보면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과 복제품에 대해 자신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예술 작품은 종교적 예배 의식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여기서 생기는 전통적인 예술 작품의 가치가 바로 종교 숭배적 가치(Kultwert)다.

종교적 제의에서 종교 숭배적 가치를 가지는 전통적인 예술 작품은 수용 방식에서도 지금의 예술 작품의 수용 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예술 작품은 수용 과정에서 '가까이 할 수 없음(Unnahbarkeit)'과 '볼 수 없음(Unsehbarkeit)'을 특징으로 갖는다. 전통적인 예술 작품은 단순히 예술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 의식의 대상이기 때문에 수용자들은 예술 작품을 보고 즐기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경외의 감정을 갖게 된다. 이러한 수용 과정에서 예술 작품이 갖는 주관적 경험으로서의 아우라가 생겨난다. 종교적 의식이 진행되는 특별한 장소에서 드물게 접할 수 있는 예술 작품은 이렇게 수용자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전통적 예술 작품이 보존하고 있는 이러한 아우라적인 특성은 기술 재생산 시대에 와서 점점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벤야민은 기술 재생산 시대의 새로운 예술 형식을 '아우라의 몰락'이라고 정의한다. 아우라의 몰락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우선 아우라의 몰락을 가져온 '예술 작품의 기술 재생산'을 분석해야 한다. 벤야민의 예술 이론에서 기술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물론 예술과 기술의 관계는 벤야민만의 새로운 주제는 아니다. 그러나 벤야민의 독창성은 바로 예술의 영역에서 기술이 가지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기술은 바로 새로운 형태의 예술의 출현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기술 재생산 시대의 예술 작품은 전통적 예술 작품처럼 일회성, 지속성, 원본성 등을 자신의 물질적 특성으로 가지지 않는다. 오히려 기술 재생산 시대에서 예술 작품의 일회성은 반복성(Wiederholbarkeit)으로, 지속성은 일시성(Flüchtigkeit)으로, 원본성은 재생산성(Reproduzierbarkeit)로 전환된다. 즉 이 새로운 시대의 예술 작품은 태생적으로 항상 재생산 가능하고, 또 이 예술 작품에 대한 원본성 등을 문제삼지 않는다. 끝없이 재생산할 수 있는 예술 작품은 더 이상 종교 숭배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 이제 새로운 예술 작품은 종교 숭배적 가치에서 해방되고, '전시 가치(Ausstellungswert)'라는 새로운 가치를 갖는다.

예술 작품의 가치 변화에서 벤야민이 주목하는 점은 '예술 작품에 대한 민주적 접근 가능성'이다. 전통적인 예술 작품은 사실 특정한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예술 작품은 이제 누구나 원하면 접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러한 접근 가능성의 확대는 수용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대상을 가까이 접할 수 없었을 때, 수용자는 예술 작품의 권위로부터 벗어나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벤야민은 기술 재생산 시대의 예술 작품이 갖는 아우라의 몰락이라는 특성을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파악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술에 대한 신비적인 견해를 벗겨내는 작업이자 동시에 예술의 기능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술은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즐김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아우라의 몰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술 재생산 시대의 새로운 예술 현상은 문화와 예술 일반의 몰락이 아니라, 예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특권적 권위의 몰락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대중을 위한 새로운 예술의 시작

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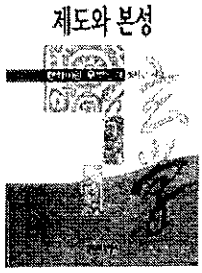
예술의 재생산 기술의 발달과 원본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은 예술 자체의 변화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의 지각 형태의 변화도 가져왔다. 즉 기술 재생산 시대에서 '지각의 구조 변화'가 일어났다. 벤야민은 새로운 형태의 예술은 이전의 전통적인 예술 작품의 수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각되고 수용된다고 주장한다. 이전의 예술 작품이 집중(Kontemplation)과 침잠(Versenkung)이라는 방식을 지각 방식으로 요구된다면, 새로운 형태의 예술 작품에는 정신 오락적 분산(Zerstreuung)이라는 수용 방식이 적합하다. 이 수용 방식과 더불어 벤야민이 주목하는 또 다른 지각 방식은 바로 '촉각적 지각(taktile Wahrnehmung)'이다. 그러나 이 촉각적 지각은 신체를 통한 직접적인 촉각적 지각이 아니라, '시각적 촉각적 지각'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대도시에서 많은 광고 사진들을 스쳐지나가면서 무심결에 볼 때, 광고 사진들은 마치 파노라마를 감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마치 무엇인가를 신체적으로 체험하는 듯한 효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바로 시각적 촉각적 지각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벤야민 예술 이론의 현대적 의의이다. 벤야민은 현대 대중 문화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가 일찍이 대중 문화를 학문적 대상으로 인정하고 이것을 진지하게 연구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또 다른 의의는 벤야민이 매체와 그것의 지각 과정의 상관 관계를 밝혔다는 점이다. 이러한 그의 논구는 특히 매체 미학의 영역에서 높이 인정된다. (대학원 · 서울대학교 강사)

◇저서 출판을 축하합니다◇

정 세 근 지음 / **제 도 와 본 성** / (철학과현실사 펴냄)

충북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정세근 동문(56회)이 펴낸 현학 소개서이다. 현학(玄學)이란 위진(魏晉) 시대에 유행한 학문적 경향을 말한다. 현학의 제도옹호론과 반대자들, 곽상의 적성설과 혜강의 양생론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제도의 자연성과 본성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설명하고 있다. 부제는 현학이란 무엇인가이다. 참고로 목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장—위진현학이란 무엇인가

1. 제도옹호론과 그 반대자들: 위진현학에 대한 정의 문제
2. 명교파와 죽림파 그리고 격의파: 위진현학의 3대학파
3. 제도와 본성: 위진현학에서 제도의 자연성 논변
4. 유와 무: 위진현학에서의 유무논쟁
5. 말과 뜻: 장자, 왕필, 구양건의 언의지편
6. 노장과 그 주석가들의 자연 개념의 형성과 변천 (값 10,000원)

‖ 내가 그를 만남으로 ‖ (1) ‖

누구의 삶이든 크고 작은 껀기(轉機) 하나 없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딱히 '전기'라 하기가 어려우면 개안(開眼)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내가 지금의 이 일을 하기까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나에게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 삶에 결정적인 또는 커다란 역할을 한 인물이나 책(의 저자)이나 사건(의 관계자)을 중심으로 '나'의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이 난을 마련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합니다. - 편집자

철학 공부를 통한 체험과 만남

백 도 형

나의 처음 대학원 시절은 그리 순탄치 못했다. 1986년 3월에 입학을 했지만 군 복무를 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3월에는 본격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공부를 시작할 수 없었다. 막상 3월 말이 되어 제대를 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려 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누님 댁에서 책과 자료 등의 짐을 모두 챙기지 못한 채 1달 간 학교를 다녀야 했고, 5월 들어서 집에 돌아오게 되자 이번에는 집을 수리한다고 해서 또 한 달 이상 공부방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다른 집에 가서 임시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수업에 들어가 보니 전공을 하려고 했던 분석철학 수업은 아주 최근의 이론(70년대 중반 이후의 힐러리 퍼트남 등의 실재론)을 다루고 있었는데, 학부 때 그렇게 최근의 내용까지 공부하지 못한 나로서는 그 맥락을 이해하고 쫓아가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래서 수업 발제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학부 수업 때는 칭찬을 받았던 선생님에게 심한 꾸중도 들었다. 공부에 자신이 없어지고, 과연 내가 철학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을지 회의가 들었다.

그 다음 해인 87년 봄에 갑자기 집안에 불행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생겼고, 당시에 다른 형제들은 지방이나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집안의 온갖 뒤치다꺼리를 모두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 공부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학교를 다니던 나로서는 더욱더 공부를 멀리할 수 있는 좋은 핑계가 생긴 셈이었는지도 모른다. 마침 그 때 분석철학회 간사 일을 맡고 있었는데, 공부가 잘 될 때 같으면 성가셨을 그 일들이 그 때는 오히려 내가 학교 다니는 유일한 의미로 생각되었고, 그 당시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학회 살림을 상당히 잘 꾸려 갔다는 칭찬을 듣기도 했다. 게다가 87년은 바로 우리나라 민주화의 분기점이 됐던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던 해였으므로, 공부에 집중하기에는 매우 어수선한(?) 시기였다.

이런 내게 학문적으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은 바로 석사 논문이었다. 사실 막상 준비를 시작할 때까지는 나는 별로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 그 때에는 솔직히 공부에 거의 마음이 떠나가 있었다. 단지 아직 취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차피 한 두 달 준비하면 대충 학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영어공부 삼아 한번 해보자는 정도의 안이한 생각뿐이었다. 주제도 언젠가 수업시간에 읽을 것들 중에서 쉽고 시시한 것으로 골랐다. 다만 지도교수였던 이명현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내가 생각한 주제가 이어지는 곳이 도널드 데이비슨(Donald Davidson)이니 만큼 거기까지 다루면 모양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해보라고 권하셨다. 데이비슨의 글들은 어렵기로 소문나 있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주문이었지만 마침 그것은 당시 막 떠오르고 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읽어야 할 분량도 많지 않고 국내의 다른 사람들도 별로 알고 있지 않으니까 대충 쓰면 학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다는 정도의 생각으로 시작하였다.

데이비슨이 어려운 이유는 그의 문장이 상당히 압축적이라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깔고 있는 내용이 많지만 그에 관한 설명이 친절치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로 내가 한 작업은 그의 이론에 대한 논리적인 체계를 잡는 일이었고, 그가 한 말과 그것에 대한 나의 해석이 가져다 주는 논리적인 귀결을 추적하고 이것을 그의 다른 논의와 비교해 보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이 당시 나의 논문은 텍스트 해석보다는 나의 논리적인 해석 위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때로서는 불가피하였는데 데이비슨이 쓴 1차 문헌과 그에 관한 2차 문헌이 당시에는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2차 문헌들도 거의 모두 데이비슨의 글 중에서 작은 주제 하나에 초점을 두어 씌어진 것들이었고, 데이비슨 자신의 글도 주제 하나에 관한 글들이었으므로 그의 전체 체계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글은 별로 없었다. (90년대 이후에는 몇 가지 나온 것이 있다.) 하지만 나는 논리적인 추적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그의 단편적인 여러 주제들을 하나의 시각으로 통일시켜 체계화 할 수 있음을 깨달았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시켰다. 분석철학자들의 글들이 포괄적인 체계의 연관을 다룬다기보다는 각각 독립적인 작은 주제들을 깊이 따지는 것이니 만큼, 어떤 선배는 나의 이런 체계화 작업이 오히려 데이비슨의 본 뜻을 오해하는 것일 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하였지만, 작업을 진행할수록 나는 여러 주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

논리적인 구성을 염두에 두면서 나의 생각은 깊이 빠져 들어갔다. 한 대목 대목마다 그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조금 전의 논점과 지금의 입장이 어떻게 관련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다른 문제에는 어떤 귀결을 가져다 줄까 등을 그의 입장에 서서 곰곰이 따져 보곤 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나중에 읽은 그의 글이나 2차 문헌을 통해 이전에 했던 나의 짐작이 옳음이 밝혀지기도 하는 기분 좋은 경험도 많이 했다.

우리 학계의 철학 논문들은 아직도 대부분 특정한 어떤 다른 철학자들에 대한 문헌 해석 위주이다. 하지만 나는 자신의 생각을 위주로 할 것을 그리고 해석을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구성한 해석을 함께 할 것을 학생들이나 후배들에게 권한다. 이런 생각은 현재 우리 학계의 형편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논문들을 쓰면서 얻은

교훈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자신의 논리적인 생각을 충분히 깊이 있게 할 수 있다면 정확한 해석과 의도를 얼마든지 복원할 수 있고, 설사 저자의 의도와 맞지 않음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깊은 생각을 바탕으로 원저자의 의도가 보이고 있는 생각을 비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원저자인 철학자를 넘어설 수 있다. 나는 바로 이 점을 철학 논문이 역사학 논문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한다. 역사학 논문은 아무래도 자신의 생각보다는 정확한 해석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지도교수였던 이명현 선생님의 영향도 컸다. 이 선생님께서는 평소 강의 시간에 특정한 주제에 관해 말씀하시면서도 그것을 항상 보다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보고, 또 그것을 다른 주제와 다른 시대의 철학자의 문제들과 연결지워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다. 게다가 당신 스스로 해석위주의 철학 작업을 "가로대 철학"이라고 비판하시면서 자유롭고 폭 넓은 사색을 추구하셨다. 이 선생님께서는 내가 논문 쓰는 과정에서도 중간에 별로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가 자유로운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때 비로소 의견을 말씀하셨다. 결국 당시에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위축되어 있던 나에게는 상당히 적절하게 보살펴 주신 셈이 되었고, 그 덕택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

하여간 나의 석사 논문의 제목은 "데이비(빈) 슨의 행위론"이었지만, 그 속에서 사건 이론과 행위 이론, 의도 이론, 심신 이론들이 하나의 틀로 체계지워짐을 보여 주었고, 많은 선생님들과 선배님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다. 애초에는 나는 논문을 마치고 졸업한 후 더 이상 공부를 계속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려고 했지만, 석사논문을 쓰고 나니 철학이란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감각이 생기고 나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 그래서 결국 박사과정에 계속 진학을 하여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다. 자신감이 생기고 나니 박사과정 중의 수업과 세미나들에서도 전과는 달리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많을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박사과정에서는 석사논문을 통해 만나게 된 심리철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였다. 나는 심리철학 특히 심신 문제에 관해 생각하면서 이것이 모종의 실재론과 관련이 있음을 간파하였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석사과정에서 퍼트남 등의 실재론과 과학적 실재론 등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이좌용 선생님의 박사학위 논문을 보게 되었다. 그 논문을 통해 암스트롱의 보편자 실재론을 처음 만나고 나는 "이거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됐다. 하지만 보편자 문제와 심신 문제를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물론 외국의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실정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미국에 가는 것을 결심하였다. 한편의 생각으로는 나의 아이디어가 그럴 듯함이 인정된다면 그 주제를 바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미국에서 쓰겠다는 생각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다가 다른 기회가 생기면 또는 처음의 생각이 여의치 않으면 미국 대학에서 과정을 다시 밟는 것도 염두에 두었었다. 우선 가는 학교는 브라운대학으로 정하였다. 마침 이명현 선생님께서 그 곳에서 학위를 하셨고, 심리철학에서 세계적인 업적을 인정받고 있는

김재권 선생님이 거기에 계셨다. 또 나의 고모님이 그 근처에 살고 계시다는 것도 좋았다.

김재권 선생님은 내게 매우 큰 도움을 주셨다. 우선 별 경력이 없는 나에게 'Visiting Scholar'란 좋은 직위를 주셔서 브라운대학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은 물론 여러 자료들도 제공해 주셨고, 특히 고마운 것은 바쁘신 중에도 나의 주제에 관해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할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미국에 도착한 후 두 달쯤 지나 처음으로 김 선생님께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생겼다. 내 생각을 들으시고 김 선생님께서는 처음에는 그리 좋은 평을 하시지 않았다. 다만 "그런 얘기는 아직 아무도 하지 않은 건데…"라는 말씀을 하시며 내 설명을 더 이끌어 내는 질문과 당신의 견해를 말씀하셨고, 논문으로 써서 갖고 와 보라고 권하셨다. 여러 준비 끝에 두어 달 후 논문을 하나 써서 드렸다. 한달 쯤 후에 논문을 돌려 주셨는데, 전체적인 자세한 의견을 첨부하신 것은 물론 장장마다 상세한 논평을 달아주셨고, 심지어는 영어표현이 틀린 것까지도 일일이 지적해 주셨다. 너무 감격했다. 그 동안에 주신 여러 가지 도움에 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바쁘신 중에도 정식 학생도 아닌 나의 논문에 대해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 일일이 평해 주시다니…. 논문과 나의 생각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가 아주 좋았다는 것도 기뻤다. 며칠 후 선생님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그 논문에 관해 더 대화할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도 선생님께서는 나의 논문에 대해 과분한 호평을 해 주셨다. 그 후 미국에 있는 동안 세 편의 작은 논문을 더 썼고 역시 그것들에 대해서도 김 선생님께서는 논평해 주시고 호평해 주셨다. 나의 입장은 사실 김 선생님과는 반대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 선생님께서는 나의 비판은 비판대로 답하시면서도, 나를 지도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그 기본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는 지에 관한 조언도 해 주셨다.

그러는 중에 김 선생님께 내가 미국에서 다시 학위과정을 밟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 선생님께서는 박사학위 논문도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 마당에 다시 과정을 밟으려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아이디어가 매우 참신하고 일리 있는 것인 만큼 빨리 학위논문을 마치고 그 주제로 더욱 깊이 연구하여 학계에 기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하셨다. 과정을 다시 밟으면 물론 기본적인 지식을 체계있게 더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자기 깊이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구태여 더 배우지 않더라도 자신 스스로 그것을 바탕으로 연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은 나중에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 빨리 자리 잡고서 필요하다면 가끔 나와서 보충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도 하셨다. 사실 외국의 유명 대학에서 학위를 하려는 것은 '간판'과 '학벌'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 학계의 사정 때문이기도 하고 어쩌면 김 선생님께서는 그런 우리 사정을 미처 모르시고 계신 것 같기는 하지만, 너무나도 지당하신 말씀으로 격려를 해 주시자 사실 고맙고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였다.

김 선생님은 작년 가을 학기에 서울대학교에 초빙교수로 오셔서 한 학기동안 강의하셔서

나는 몇 년 만에 선생님으로부터 깊이 있는 가르침을 자주 배울 기회를 얻었다. 국내 학계에서도 김 선생님께서 강의하시고 논문을 발표하시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고, 국내에 심리철학 전공자가 많지 않은 관계로 나는 그 프로그램들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어서 선생님과 학문적인 토론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많이 가졌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으로도 나를 비롯해 심리철학을 전공하거나 관심 갖고 있는 소장 학자 몇 명과 일 주일마다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같이 참여하고 공부할 수 있었다. 어찌 보면 지난 가을 학기가 내가 대학원에 들어와서 철학 공부를 업으로 삼은 이래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한 때가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김 선생님의 여전하신 학문적 진지함은 지금까지도 나의 학자로서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철학과 교수)

◇역서 출판을 축하합니다◇

앤거스 그레이엄 지음 / 나 성 옮김 / (새물결 펴냄)

도(道)의 논쟁자들

이 책은 하버드 대학의 옌칭연구소를 이끈 벤자민 함께 서양의 동향학의 양대 산맥인 세계적인 중국 철학자 앤거스 그레슈워츠(1916~2000)와 이엄(1919~1991)의 명저 《Disputers of the TAO》를 한신대 철학과교수로 재직중인 나성 동문(47회)이 완역한 것이다. 중국의 고전시기(기원전 500~200년)의 다양한 철학 학파들간의 논쟁을 종합적이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이 책은 이미 고전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역저이다.

그레이엄은 서구의 중국학자들 중에서 한문에 대한 문헌학적 소양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몇 안 되는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중국 철학에 대한 저자의 관심은 송대의 신유학에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그는 곧 관심의 방향을 선진으로 돌려 선진철학사에서 뚜렷이 대비되는 스펙트럼인 후기 묵가의 합리주의와 도가의 반합리주의적 경향에 연구를 집중시켜, 서양권에서 아직도 이 분야에 대한 독보적인 저작으로 대접받는 저서들을 상재하기에 이른다. 선진철학사를 다룬 여타의 책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책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이 두 진영, 즉 후기 묵가와 장자학파의 철학적 문제의식과 그 사유방식을 논리성을 갖춘 철학적 논쟁의 과정으로 제대로 조명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진 철학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면서도 그동안 언제나 턱없이 무시돼 왔던 명확한 분석적 분위기를 따라 선진철학사를 치밀한 철학적 사유들의 경연장으로 읽어보고자 한다면 이 책은 둘도 없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그동안 일반적으로만 언급되던 법가와 노자철학의 관계를 적절히 짚어주고 있다는 점도 이 책이 지니고 있는 차별성 가운데 하나이다. (값 33,000원)

□ 同門을 찾아서 7 □

성결한 마음, 긍정적 사고, 성실한 생활

— 충암고등학교 교사 장 영 호 동문(51회)을 찾아서 —

· 인터뷰: 김범수(동문회 간사 · 대학원 박사과정), 박유리(학부 4학년/ 정치)

7월 말, 방학이 한창 시작될 즈음이라고 여겼지만 학교 앞은 교복 입은 남자아이들로 북적거렸다. 가만 생각해보니 지금 이때쯤엔 방학하고 나서도 보충수업을 받는 시기인 것 같다. 내 생애 딱 두 번째로 남자고등학교 안을 들어가게 된 셈인데, 이미 그럴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 무리 지어 나오는 남학생들을 지나칠 때마다 왠지 고개가 바닥으로 떨궈지며 귀가 화끈거렸다. 이번에 찾아 뵐 선배님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충암고등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설마 인터뷰 장소가 학교 안 일 줄은 몰랐다. 함께 한 범수 선배와 나는 오래되고 약간 낡은 듯한 건물 2층의 교무실에서 장영호 선배님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는 교무실 한켠에서 이미 퇴근해 버린 선생님들의 책상을 사이에 두고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첫마디는 자연스럽게 지금의 학교 문제로 시작되었다.

#학내 문제에 대하여

-난 잘 모르겠지만, 요즘 학교가 총장문제로 시끄러운 것 같던데요?

불쑥 선배님이 먼저 말문을 여셨다. 그때 우리는 낯선 교무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던 터라 저으기 놀라기까지 했다.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학교 다닐 적에도 그 분(어윤배 박사)이 사회사업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친분이 있거나 직접 배워 본 적은 없었지만 성실한 분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해할 수가 없군요. 우리네 같은 사람이면, 굳이 싫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 건지 원… 하하…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기독교 대학들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그것은 기독교 단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개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작은 변화-퀘이커교도

-선배님은 직접적으로 기독교 개혁을 말씀하셨는데, 교회에 나가시나요?

-나는 퀘이커교라고… 사람들이 좀 생소해 할 수도 있는데 들어본 적 있나요?

-영국에서 생긴… 기독교 단체 아닌가요?

-맞아요. 내가 처음 퀘이커교에 대해 들어본 것은 숭실대 대학원에 다닐 때 함석헌 교수님의 노자 장자 강독을 들으면서였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볼테르의 철학적 편지들(philosophical letters)이란 책의 첫 번

째 장에 퀘이커교도에 대한 내용을 읽고서부터였죠. 기독교에도 이런 것이 있구나… 새로웠던 것 같아요. 퀘이커교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특정한 교리나 의식에 매어있지 않지요. 얘기하자면 길지만… 하여간 그 후에 우리나라에도 퀘이커교도의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회원으로 있지요. 그 때가 아마 80년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연세대 교육대학원 다니면서 종교와 신학에 대해 공부했는데, 석사 졸업 논문도 퀘이커교에 대한 것이었어요.

장 영 호

선배님은 책상에서 그 논문을 보여주셨다. 나는 선배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무래도 이 분은 학교 다닐 때, 공부만 열심히 하는 모범생파가 분명했을 거라 단정을 내렸다.

#교실붕괴?

-여기 충암 고등학교는 언제부터 재직하셨나요?

-84년부터에요.

-졸업하시고 바로 충암고등학교에 부임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 학교 졸업한 후, 숭실대 대학원에 한 학기 다니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휴학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연히 신문에서 월간 바둑이라는 바둑잡지에서 편집기자를 구한다는 기사를 보고 원서를 내고 붙어서 한 2년 간 다녔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바둑을 좀 두었거든…. 숭실대에서는 내가 1인자였지, 하하…. 근데 내가 바둑 두는 건 좋아하지만, 바둑기자로 앞으로의 직업을 정하기엔 회의가 들더군요. 또 그 월간바둑의 회사 사정도 좀 복잡하고 해서… 사표를 쓰고 나왔더랬어요. 들어갈 땐 어렵게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쉽게 나오더만 허허…. 그 후에 마침 충암학원(충암고등학교)의 이사장님이 · 한국기원의 이사장도 하셨던 분이라 그 인연으로 여기 충암고등학교에서 일하게 되었지요. 학부 다닐 당시에 교직과목을 가르치시던 조의숙이라는 교수님이 철학과 학생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난 별로 교직에 관심이 없었지만 티오도 되고… 그 분께서 권유 하시길래 그냥 이수했었는데, 그 덕분에 이렇게 밥 먹고 살게 되니 사람 일이란 참 알 수가 없는 거에요. (웃음)

-교단에 오래 계셨는데, 요즘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자주 다루는 교권 상실 같은 학교의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솔직히 예전과 달리 학생들을 다루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이들이 인터넷과 감각적인 대중문화에 익숙해져서 깊이가 없어지고, 심지어는 책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책을 읽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과 모순이 될지는 몰라도… 아직은 상당수의 아이들이 교사의 말을 잘 따르고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요. 아니 아직이라는 말보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위기라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염려하고, 관심을 가질 때는 위기가 아니지만 아무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위기의식이 없을 때 그것이 바로 위기니까요.

-그래도 일부에서는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40명의 반 학생 중 다섯 명만 수업을 들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던데요?

-그런 상황은 극단적인 예구요. 우리학교는 이미 방학을 했는데, 3학년 학생들은 나와서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오늘 날씨도 참 덥잖아요. 그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 공부하고 있고… 소수의 학생들이 졸고 있기는 하지만 하하…

선배님과 나눈 대화중 이 이야기가 무척 인상 깊었다. 그 말이 빈말이나 형식적인 말이 아닌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을 아끼는 선생님의 자애로운 마음이 담겨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아무리 신문에서 학생이 체벌한 선생님을 신고하고, 교사와 다투고 법정싸움을 한다고 보도해도… 그래도 그 현장에서는 다수의 학생들을 예쁘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나의 선배님 같은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말이다.

#가족, 그리고 공부

- 늦게 교육 대학원에 다니셨는데 다시 공부를 시작하신 이유는?

-늦게 다녔지요. 고생 많이 했어요. (웃음) 나이 들어서 공부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지요. 직장도 다니면서 하려니까… 그렇지만 욕심은 있고… 그래도 졸업할 땐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와- 정말요??) 99년 가을학기 졸업이었지요.

-특별히 교육대학원가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충전과 자기연마의 기회를 삼고 싶었고, 두 번째는 철학과 종교 그리고 신학 이런 쪽에 관심이 쭉 많았기 때문에 더 공부하고 싶었어요.

-가족분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제 고 3된 아들이랑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이 있어요. 아내는 내가 바둑기자 할 때 만났는데 그때 80년대엔 꽤 유명한 여류국수였지요. (웃음)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학교 다니실 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C.C(캠퍼스커플) 같은 건 안 해보셨어요?

-그 땐 공부말고 관심이 없었어요. 기우회 창설 멤버이기도 했는데, 철학에 미쳐있던 때라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못했고… 그때 독일 철학말고도 한창 영미철학, 분석철학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내 졸업논문은 비트겐슈타인이었어요. 지금이야 *Tractatus*가 번역되었지만, 그때는 번역서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원서를 구해서 공부했지요. 러셀, 니체, 하이데거, 헤겔 등 처음엔 서양철학을 공부하다가 나중에 도가철학에 관심이 가더군요.

-(선배님이 공부 벌레였을 거란 나의 짐작은 맞았다. ㅡ.ㅡ)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점심으로 배달시킨 비빔밥이 도착했다. 선배님은 무척 자상하게 여러 가지를 신경 써 주셨는데, 식사를 다 마치고 손수 커피까지 타주셨다.

-앞으로 하시고 싶은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는 거 말고 뭐 더 있겠어요? 하하… 그리고… 좀 더 시간을 짬짬이 내서 공부를 하고, 주변에 퀘이커교에 대해서도 좀 널리 알리고 싶은 바람도 있어요.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동문회에 바라는 점

-마지막으로 동문회에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은?

-숭실 철학 강좌에 항상 참석하고 싶은데… 그게 4시나 5시쯤 시작하잖아요. 참 아쉽더라구요. 학교 끝나고 가려면 도저히 그 시간에 갈 수가 없으니 말이에요. 강좌를 주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좀 시간을 직장인들을 위해 맞춰주실 수는 없는지… 일반 학생들이야 그 시간에 맞출 수 있겠지만 졸업한 동문들이 시간을 내서 그 시간에 참석하기는 참 힘들어요. 시간을 좀 늦춰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이 드네요.

#마치며

세 번째(개인적으로는)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에 뵙게 된 장영호 선생님께 가장 많이 철학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 비록 대학에 계신 것은 아니지만 마치 고명한 어느 학자 분과 인터뷰를 한 기분이었다. 함께 한 범수 오빠와 선배님 두 분이서 줄곧 독일 철학과 영미철학, 그리고 도가철학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유감스럽게도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그러나 단 한가지 듣고서 같이 공감하고 웃었던 이야기는, 선배님이 어윤배 박사가 무위자연(無爲自然)하는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였다.

더운데 나오지 마시라고 말렸음에도 선배님은 학교 현관까지 배웅을 하셨다. 인터뷰하기 전 학교를 올라오면서 100원 짜리 아이스크림을 사먹었는데 한 십 년만인 것 같았다. 다시 한 십 년 뒤, 그때도 이렇게 그립고 정다운 기분으로 누군가가 나를 찾아올 날이 있을까… (^, -)

동 문 회

Ⅰ. 동문 동정

▶**김기상** 동문(대학원) 7월 21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김인환 씨와 딸 예원 씨가 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미망인 연락처: 017-203-8971/ e-mail: inak@nuri. net

▶**이승렬** 동문(49회 · 신학박사) 지난 1월부터 「주님의 교회」(담임: 임영수 목사) 사회선교 담당 부목사로 부임했다.

▶**제갈창수** 동문(50회 · 철학박사) 지난 3월 1일자로 경민대학 교양과 교수로 부임했다.

▶**오정선** 동문(51회 · 목사) 지난 2월 보스턴대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93년부터 시무하던 시온 한인 연합 감리교회(로드아일랜드 주)를 사임하고 작년부터 메인 주 소재 Brunswick United Methodist Church의 담임목사로 있다.

▶**김재홍** 동문(56회 · 가톨릭대 인간학연구소 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가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중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번역과제사업(3년)에 가톨릭대 이창우 교수, 서울대 강상진 박사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한빈** 동문(62회 · 천안대 교수) 8월 18일 김다혜 양과 화촉을 밝혔다.

▶**김유석** 동문(67회 · 파리대학 박사과정) 프랑스 유학중 일시 귀국하여 6월 24일 동문 수학하는 이진 양과 화촉을 밝혔다.

철 학 과

Ⅰ. 교수 동정

▶**김기순** 교수 8월 31일자로 정년을 맞아 20년 근속한 철학과 교수에서 퇴직했다.

▶**김광명** 교수 1년 간의 연구년을 마치고 9월 1일자로 강의에 복귀한다.

Ⅱ. 학부 및 대학원 소식

▶**철학과**는 8월 17일 열린 200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길재선, 김권영, 김정식, 강원식, 신석호, 안성하, 배기호, 정이랑이 바로 그들이다. 졸업을 축하하며, 어려운 시절이지만 그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대학원 철학과** 학생회(회장: 김시천)에서는 7월 2일에 월례발표회를 가졌다. 김범수씨(박사과정 · 철학과 조교)가 "들뢰즈는 시뮬라크르로 무엇을 말했는가?"라는 제목으로 논문 발표를 했고, 유재민씨(69회 · 서울대 박사과정)가 논평을 하였다.

주소 업데이트

▶**김재욱** 동문(47회 · 극동방송 기획실장) 서울시 성북구 돈암2동 609-1 한진아파트 206동 502호

▶**오정선** 동문(51회 · 목사) 6 Brian Dr. Brunswick, ME 04011, USA.
e-mail: revdrjungsunoh@hotmail.com

▶**김선욱** 동문(55회 · 숭실대 강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21번지 청구아파트 509동 204호

▶**구자형** 동문(63회 · MBC PD)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74번지 삼성아파트 101동 1006호 (전화) 53667-8209

▶**권일훈** 동문(67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2동 752-37 쌍용시티빌 103호 (전화) 032-512-1545

▶**김범수** 동문(대학원 · 철학과 조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886-9 3층

▶**김영욱** 동문(대학원)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638-10 한신빌라 201호 (전화) 3493-3927

기 타

▶7월 3일 동문회에 손계율이라는 이름으로 회비가 입금되었으나, 동문 명단 가운데 그런 이름이 없어 납입자의 신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인 되시는 분께서는 동문회 사무실(820-037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계간
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2001 가을 (통권 제13호)
2001년 9월 1일 발행
발행인: 이 승 하
편집인: 한 석 환
간 사: 김 범 수
㉾156-743 · 서울 동작구 상도동 1번지
tel: 820-0370/ fax: 824-4382
e-mail:
philosophy@saint.soongsil.ac.kr